

간협,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는 교육은 '기본과정' 및 '치매조기검진과정'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본과정' 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7월 6일(1차)과 7월 21일(2차)에 실시됐다. △치매 대상자 초기상담 △사례관리 △정신행동증상 간호 △응급상황 대처 등이 다뤄졌다.

'치매조기검진과정'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7월 7일(1차)과 7월 14일(2차)에 실시됐다. △신경심리평가의



대한간호협회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7월 6일 열린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

'기본과정' 및 '치매조기검진과정' 4회 실시

오는 10월 교육 계속 ... 일정 추후 공지

개요 △신경심리평가 도구의 이해 △치매선별검사의 실제—MMSE-DS 중심으로 △신경심리평가도구의 실제—CERAD 중심으로 △신경심리평가도구의 실제—SNSB 중심으로 등 이론

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기본과정' 및 '치매조기검진과정'은 오는 10월에 계속 열릴 예정이며,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 ... 조기검진 및 맞춤형 사례관리

대한간호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치매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서면서 조기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매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치매간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경증치매환자의 초기 안정화(3~6개월)를 위해 치매단기쉼터를 운영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환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및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한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한다.

치매안심센터에 관심 있는 간호사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의 채용공고를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모집 현

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2017년 9월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부터 강조해온 주요 국정과제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에 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최근해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인구도 증가해 2016년 기준 69만명에서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져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이 2015년 2033만원에서 2050년 39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혜진 기자 hjo@

김영병은 수두, 백일해, 성홍열 등 16개이다.

반면 신고건수가 감소한 김영병은 A형간염, 말라리아, 뎅기열 등 13개이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김영병과 관련은 '김영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

김영병 감시연보에는 '김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0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다.

2017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김영병 59종 중 40종의 김영병이 신고됐고, 19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연보에 따르면 2017년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건수는 15만2869명으로 전년대비 46.9% 증가했다.

전년보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Nursing Anne Simulator

Nursing Anne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

- ✓ 무선 기능 및 독립형 설계
- ✓ 관절 움직임/운동 범위: 실제 환자와 동일한 케어 가능한 전체 관절 움직임 가능
- ✓ SimPad Plus 활용 심박수, SpO₂, 혈압, 호흡수, 체온, ECG 및 etCO₂를 표시
- ✓ 운영 체제: 자동 모드 및 수동 모드 운영
- ✓ 자발호흡: 양측 또는 편측 흉부 상승
- ✓ 환자 관리/평가: 눈깜박임 가능
- ✓ 맥박: ECG 동기화, 강도 조절 가능
- ✓ 폐음: 설정 호흡수(0~60bpm)와 동기화된 가슴 및 등쪽 폐음 측정

주문 정보: 전신 여성 시뮬레이터,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흑갈색 가발, 갈색 동공 세트,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및 주입 주사기, 장루 세트, 혈압 커프, 설치 안내서, 시뮬레이션된 혈액, 성인용 가운 및 빠른 설치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LLEAP 강사용 컴퓨터(태블릿, 러기드 태블릿, Laptop 혹은 All-in-one)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Nursing Anne Simulator는 SimPad Plus/LLEAP 강사 컴퓨터로 작동되며 시뮬레이션된 환자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